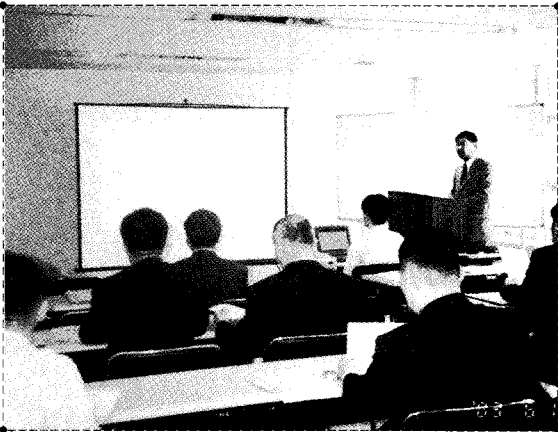


## Korea Logistics Association a Report

# 한국물류협회소식



### ◆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사)한국물류협회는 지난 6월 18일 2003년도 제2차 정기 이사회를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오투기(주)대풍공장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지난 2003년도 2/4분기 업무추진 실적과 3/4분기 업무진행계획에 대한 보고와 협회 임원의 선임의 건, 협회업무에 대한 협조 요청 건에 대한 부의사항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사회에 보고한 2/4분기 업무추진실적은 ▲회원사 및 회장단의 변동사항 ▲회원사 회비 납부사항 ▲제7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추진 경과 ▲물류정보화 연구회 및 물류 본부장/부서장 포럼 개최 ▲2003년 제11회 물류혁신대회 개최 준비사항 ▲제 7차 물류정책 토론회 개최 ▲물류능력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에 보고했다.

이와함께 3/4분기에 추진될 업무도 보고됐다. 8월 24일에 실시될 제 7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실시를 비롯해 ▲물류정보화 연구회 및 물류본부장/부서장 포럼개최 ▲제8차 물류정책토론회 개최 ▲해외 벤치마킹연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또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주)성화인터내셔널 이창화 사장을 협회 이사로 선임하는 건에 대해 전원 승인 및 가결했다. 두 번째인 협회 업무협조 요청의 건은 오는 2003년 한국물류혁신대회 참여를 요청하며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2001년 물류혁신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오투기(주)의 대풍공장 견학도 함께 실시됐다.

이사회에는 (사)한국물류협회 서병륜 회장을 비롯해 코리아코프 김정식 사장, 대신정보통신 이재원 사장, 아신 김의곤 이사, 용마유통 김인호 사장, 한국통운 최승락 사장, 한국암웨이 노원호 상무, 덕유 김휘일 사장, 오투기물류서비스 강세영 사장, 아세테크 박종석 사장, 명지대학교 김정환 교수, (사)한국물류협회 신유균 전무 등이 참석했다. **물류**



## ◆ 물류대상 심사위, 업체 현장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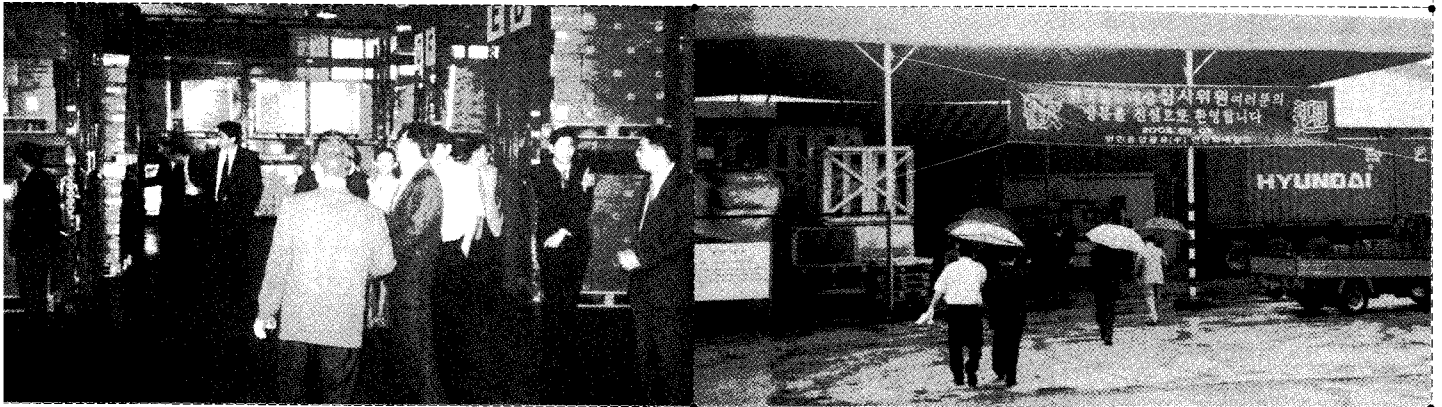
(사)한국물류협회는 2003년 한국물류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후보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에 이어 현장심사를 지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했다.

2003년 한국물류대상은 물류향상 우수기업(기관) 및 과거 지정된 기업(기관)중에서 물류혁신과 시스템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타기업(기관)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물류업계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상이다.

한국물류협회는 물류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2003년 물류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 한양대 김승철 교수)'를 구성하였다. 물류대상 심사위는 지난 6월 20일까지 접수된 기업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심사에 걸쳐 물류대상 수상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물류대상 심사위의 2차 현장심사는 1차 서류 심사에 제출된 기업체의 서류를 토대로 추가적인 부연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는 업체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물류대상은 정부 포상으로서 동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건설교통부장관 표창과 민간 포상으로서 한국물류협회장상, 매일경제신문사장상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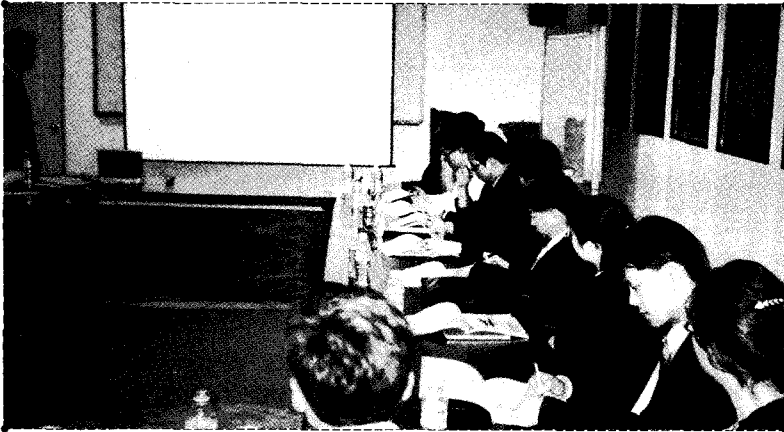
## ◆ 2003년도 제5차 물류 본부장 · 부서장 포럼 개최

한국물류협회는 각 기업의 물류 본부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5차 '물류부서장 포럼(BLM FORUM)'을 지난 6월 19일 개최했다.

물류부서장 포럼은 매월 개최되며 물류현실과 정보화 시스템의 고리를 효율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정보공유의 장으로 2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EXE컨설팅 강석현 전문이사가 '물류현장개선 추진방안'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김승철 교수가 '프로젝트 관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강석현 전문이사는 최근 기업들의 추세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창고, 운송수단 등 하드웨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물류부문의 아웃소싱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제품의 다양화, 다품종, 소



량화가 일반화되면서 물류서비스에서도 다품종·다빈도 물류서비스에도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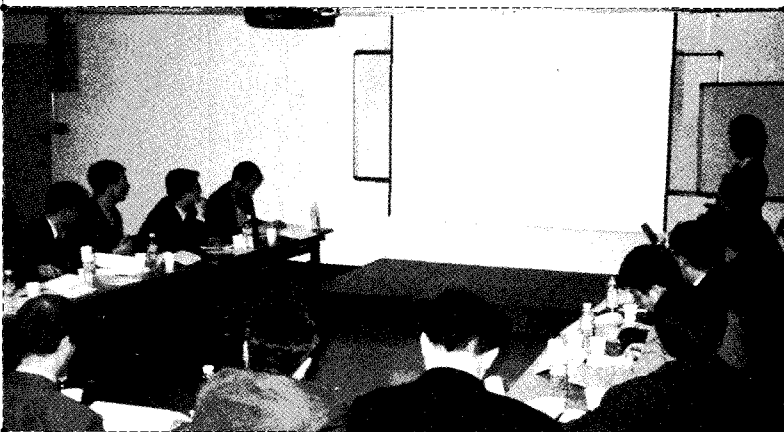
다품종·다빈도 물류서비스는 전국적인 물류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작업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물류센터의 재고감축 및 거점간 균형으로 기회 로스(loss)를 최소화 시키고 100% 주문을 충족하며, 납기단축 및 일관성 등의 목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로 발표를 한 김승철 교수는 국내의 프로젝트관리가 경험에서 습득한 지식으로만 운영되었기 때문에 실패사례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로젝트는 각 시기의 문제점이 다르고 그에 따른 주안점과 접근방법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차별화된 대응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프로젝트는 팀을 통해 수행되며 팀은 프로젝트의 기본작업 단위이며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뒤, 프로젝트 관리자는 팀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형성해야 하며, 팀 정신의 개발을 통해 팀을 유형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

## ◆ 제 5차 물류정보화 연구회 개최



(사)한국물류협회는 지난 6월 10일 물류정보화 연구회를 한국물류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물류정보화 연구회는 '패션용품 물류수행을 위한 창고관리시스템 구축 사례'를 현대택배 유영준 차장이, 'SCM상에서의 포장 및 적재 최적화 정보시스템 솔루션 소개 및 적용 사례'를 (주)로젠솔루션 이동명 대표가 발표를 했다.

첫 번째 발표를 한 유영준 차장은 먼저 현대택배의 WMS 개요설명으로 시작하였다. 당사는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작업의 편리성과 작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HLC Advanced WMS 모듈을 기반으로 빠른 고객 주문을 대응하는 HLC Crossdock, 물류가공을 지원하는 HLC Value, 차량관리를 지원하는 HLC Dock, HLC Billing 등을 통해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WMS의 주요 기능에서 화면구성은 창고관리자와 RF사용자 등 2개의 사용자부문으로 되어 있으며 실시간으로 창고내 작업현황의 모니터링과 관제를 제공한다.

또 입고 예정정보관리와 RF에 의한 입고관리, 입고관리(실적관리) 및 재고관리, 출고관리재고관리, 반품입고 관리기능이 있다고 나열했다.

최근 패션용품시장의 특성은 다품종 소량유통으로 빠른 전환의 QR대응이 필요하며 제품회전력을 증대시켜야 하는 특성이 필요하므로 물류부문의 대응방안은 다품종 소량 유통에 따른 빠른 상품회전에 대응하고, 정보시스템의 대응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출입, 창고관리, 배송 등 전 분야의 프로세스에 대한 서비스인 토탈 물류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로 나선 이동명 대표는 포장표준화를 비롯해 적재 문제 등을 제시하고 적재문제의 해결방안과 포장 및 적재 시뮬레이션의 진행과정, 이를 통한 기대효과 등에 대해 말했다.

이를 통한 H자동차의 대포장 최적화 시스템, L전자 최적 적재시스템, S전자의 최적 적재시스템의 구축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물류**

## ◆ 홍콩투자청, 투자유치 위해 본 협회 방문

홍콩투자청(InvestHK)이 지난 8월2일 한국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하고 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를 비롯해 국내기업 등을 방문, 홍콩투자 홍보활동을 펼쳤다.

한국물류협회에는 홍콩투자청 벤자민 왕(Benjamin Wong) 물류/운송 담당 부서장과 홍콩투자청 한국대표부(대표 맹청신) 이상민 과장이 지난 8월 4일 방문해 신유균 전무이사를 비롯해 협회 관계자를 만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홍콩 투자청의 벤자민 왕은 “홍콩은 대중국진출을 위한 최적의 위치에 있으며 물류업체가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손색이 없다”며, “한국 물류기업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물류협회 신유균 전무도 “홍콩투자청은 국내 물류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중국진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 진출하는 협회 회원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투자청은 홍콩 및 중국 광동성지역(주강삼각주 지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으로,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이점은 무엇이며, 거대 중국시장진출을 위해 왜 홍콩을 거점지역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투자단은 한국기업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본 협회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한국컨설팅협회 등을 포함한 20여개 기업 담당자를 만나 홍콩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했다. **물류**

